

보도일시 (인터넷) 2023. 7. 13.(목) 11:00,
(지면) 2023. 7. 14.(금) 조간

배포 2023. 7. 13.(목) 06:00

해외에서 순직한 원양어선원 유해, 35년 만에 그리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 7. 14.(금) 추모행사 개최 및 유족에게 유해 전달, 유해 3위(位) 국내로 이장

1970~8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역군으로 세계의 바다를 누비다 이역만리에 묻힌 원양어선원 유해 3위(位)가 그리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스페인 라스팔마스 납골당에 안치되었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유해 3위(位)를 국내로 이장한다. 이를 위해 14일(금) 한국원양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추모행사를 갖고, 유족에게 유해를 전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02년부터 '해외 선원묘지 정비 사업'을 통해 스페인 라스팔마스(Las Palmas)와 테네리페(Tenerife)*, 사모아(Samoa) 등 7개 나라에 있는 287기의 묘지를 현지 한인회 등의 도움을 얻어 관리해 오고 있다.

* 라스팔마스와 테네리페는 1970~80년대 원양어선들이 주로 조업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어장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대서양에서의 어업활동이 이루어졌음

특히, 2014년부터는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현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원양어선원 유해를 국내로 옮겨와 가족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번 3위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34위의 유해를 이장하였고, 284위가 해외에 남아 있게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머나먼 이국땅에서 고혼이 된 원양어선원의 넋이 편히 잠들 수 있도록 해외 선원 묘지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유해의 국내 이장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외 원양어선원 유해의 국내 이장 사업은 한국원양산업협회가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02-589-1611)로 문의하면 된다.

< 해외 원양어선원 국내 이장을 위한 유해 인도식 개요 >

- ◇ 일시/장소 : '23.7.14.(금) 11시 / 한국원양산업협회 **대회의실**
- ◇ 참 석 자 : 유족, 해수부 수산정책관, 원양산업협회장, 원양노조위원장 등
- ◇ 주요 내용 : 인사말씀, 추도사, 헌화 및 유해 전달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원양산업과	책임자	과 장	이재영 (044-200-5360)
		담당자	사무관	정윤석 (044-200-5368)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원양어선 승선 중 순직하여 해외에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선원 묘지의 개·보수 및 관리, 국내이장 지원 등('14~)

* 근거 :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 (수행방식) 민간보조(국고 90%, 원양산업협회 10%)

- (사업비) 74백만원

□ 사업 추진 현황

- (묘지관리) '02~'03년 해외묘지 일제정비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8개 지역* 묘지 개·보수, 조경 및 주변 청소 등 시행

* 라스팔마스, 테네리페, 수리남, 사모아, 피지, 타이티, 앙골라, 세네갈

- (국내이장) 유가족의 신청을 받아 총 34기 이장 지원('14~)

* 국내이장 소요경비 및 관련 외국 정부와의 협의 등 지원

- (사업홍보) 신문, 라디오 등을 통해 국내이장 시 국비 지원 등 홍보

< 해외 선원묘지 관리현황('23년) >

단위 : 기(基)

합계	라스팔마스	테네리페	사모아	수리남	피지	타히티	앙골라	세네갈
284	92	16	86	31	16	14	16	13
이장(34)	23	3	7			1		

□ 사업 추진절차

-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사업계획 수립·공고(원협) → 사업신청(현지 한인회, 국내 유가족 등)
→ 세부사업계획 승인요청(원협→해수부)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해수부→원협)
→ 사업 추진(원협) → 사업 정산

* 원양협회에서 현지 한인회, 명예해양수산물 등의 지원을 받아 사업 수행

- ▶ 사업 수행주체는 원양협회이며, 현지 한인회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스페인 라스팔마스 원양어선원 위령탑 및 납골당 전경〉



〈원양어선원의 국내 이장을 위한 유해 전달〉